

폼페이오, 北 제재완화 넘어 민간투자 공언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 때 에너지망·농업 장비 지원 “고기 먹을 수 있다” 공개 화유



폼페이오 장관

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면서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북한)은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길 원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 특히 미국의 농업과 기술이 북한을 지원하면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

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즉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미국인은 엄청나게 (in spades)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2 반란 일으킨 안녹산

안녹산(安祿山, 703~757)은 현종 때의 무장으로 756년 난을 일으켜 당 왕조 쇠망의 주역으로 평가된다.

외국계 혼혈인 잡호(雜胡) 출신이다. 라오닝성 차오양현 출신이다. 부친은 이란계 소그드인 무장 안연언이고 모친은 터키족 돌궐계로 알려져 있다. 부친 사망 후 모친이 돌궐족 장군과 재혼해 계부 밑에서 자랐다. 유주 절도사 장수규 눈에 띄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승진을 거듭했다. 장수규의 양아들이 되고 742년 평로절도사에 발탁되었다. 744년에는 범양절도사를 겸하였다. 재상 이임보와 석견 후, 배안 등 중신이 공평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해 현종의 신임이 두터워졌다. 전투에서 기이한 전략으로 승리를

“자네의 그 배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었는가”고 물었다. 재종이 300근이고 벼살이 무릎까지 늘어져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오로지 붉은 마음만 있습니다”고 답하였다. 태자를 알현하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 배석한 신하들이 절을 하도록 재촉했지만 팔짱을 끼고 서서 말하였다. “신은 호족 사람으로 조정의 예를 배우지 못해 태자라고 것을 모르는데 무슨 관직인가?” 황제가 “짐을 대신해 너의 주군이 될 분이다”고 말하자 마지못해 절을 하였다. 황제가 더욱 총애하였다. 그의 생일에 귀비는 그를 비단으로 만든 강보에 싼다. 744년에는 범양절도사에 싼다. 744년에는 범양절도사를 겸하였다. 재상 이임보와 석견 후, 배안 등 중신이 공평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해 현종의 신임이 두터워졌다. 전투에서 기이한 전략으로 승리를

당나라 수도 점령했지만 아들에 피살

거두곤 했는데 때로는 무리한 공격으로 많은 장병을 잃고 패전을 기록하기도 했다. 거란과 싸울 때는 적을 초청해 연회를 연 다음 죽여 버리는 일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뇌물 공세를 펼쳐 자신에게 유리한 보고가 올라가도록 힘썼다.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다.

재상 이임보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비한족 출신을 절도사로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안녹산, 고선지 등이 크게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비한족이 군사력을 장악함에 따라 조정의 안위가 위태로워졌다. 노획한 이임보에게는 늘 급신거렸다. 한겨울인데도 그의 앞에서 맘을 비웃듯 흘렀다. 일찍이 재상 장구령은 그의 관상을 보고 모반의 징후를 느꼈다. “안녹산의 얼굴에는 모반의 상이 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훗날에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받으면서 권세가 높아졌다. 황제는 743년 입궐한 그에게 흥려정에서 큰 환송연을 베풀었다. 심복인 유락곡을 장안에 상주시켜 궁중의 동정을 빈틈없이 파악했고 조정 중신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뿌려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었다. 746년 거란을 격파하는 공을 세워 장안에 입성했다. 양귀비의 언니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귀비의 양자가 되었다. 하루는 현종이 그의 거대한 배를 보고

녹산을 적으로 간주해 여러번 황제에게 반역할 것을 주청했다. 계속된 주청에도 신임을 거두지 않았던 황제는 법양에 파견한 보구정에게 뇌물을 뿌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자 이여가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태자와 재상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모반의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결국 755년 어양에서 15만 병력을 움직여 거병했다. “밀조를 받들어 양국충을 치고자 한다”는 것이 거병의 이유였다.

백거이의 장한가에는 “어양의 북소리가 땅을 울리며 거병했다”고 거병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조정은 그의 위세를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나 범양, 평로, 하동절도사로 당 군사력의 3분의 1을 장악한 반란군의 기세는 무서웠다. 낙양을 함락시키고 756년 스스로 웅무황제로 칭하면서 국호를 연으로 연호를 건무로 정했다. 동관을 돌파하고 장안을 점령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장안 점령 무렵 실명 직전이었고 갖가지 병으로 매우 광포해졌다. 주변 사람들을 자주 죽여 공포 분위기가 팽배했다. 젊은 부인이 낳은 안경은을 태자로 세우려하자 남 안경사가 부친을 살해했다. 그러나 반란을 진압하는데 7년여 세월이 소요됐고 당은 이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이틀 연속 자폭테러 경찰관 포함 최소 17명 사망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에 의한 연쇄 폭탄테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내에서 하루 만에 또다시 자폭테러가 감행됐다.

14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동(東)자바 주의 주도 수라바야 시내 시타칸 거리에 있는 지역 경찰 지휘부에 오토바이 두 대가 돌진해 폭발을 일으켰다.

사상자 규모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살폭탄범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두 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라바야에서는 전날 오전 9세 소녀를 포함한 일가족 6명이 성당과 교회 3곳에서 연쇄 자살 폭탄테러를 벌여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와 네 자녀를 자살폭탄으로 동원한 디타 우프리아르도(46)는 IS 연계 테러 조직 지역 담당자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과 13일 수라바야 시내 등지에서 자폭테러가 연속적으로 감행됐다. 13일 폭탄테러가 발생한 수라바야 한 교회 건물의 화재 진압 모습. 연합뉴스

시진핑, 미국 못 믿겠다는 김정은에 중간 지원 타진

日언론 ‘비핵화 도중 지원’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비핵화 중간단계에서 경제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에 다음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비핵화 도중에도 지

원’이라는 제목의 중국 선양 및 서울발 기사에서 지난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아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미국이 비핵화를 종료하면 경제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와 관련한 일괄타결 후 지원 약속 이행이라는 미국측 입장에 김 위원장이 내심 회의적 입장을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북미는 협상에서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며 “비핵화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기대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 “미국과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이 중간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는

전했다.

시 주석은 이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며 비핵화 요구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과의 협의로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대의 명분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뒤 경제 지원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온도 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중개 역할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